

笑女流濫

소녀유람

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제 7 회 여 성 제

9월 20일(월)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개막제〉 여성에게 폭력 없는 공간이란 12시 민주광장
〈강연〉 범죄와 여성인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 + 〈사라진 여성들〉 상영
6시 30분 위당관 B09호 / 강연: 권감현영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9월 21일(화)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피자에 연대와 함께하는 나에게 꼭 맞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워크숍
1시 ~ 4시 학생회관 3층 / 푸른샘
〈강연〉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 구성의 권리 + 〈거북이 시스터즈〉 상영
6시 30분 위당관 B09호 / 강연: 타리 (장애여성 공감 운영위원)

9월 22일(수) "여성 문화 다시보기"

Play Again!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뮤직살롱 +
여왕의 타로점 1시 ~ 4시 학생회관 3층 / 푸른샘
〈강연〉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6시 30분 위당관 B09호 / 강연: 김영옥 (문화평론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She Said

제7회 여성제

"笑女流濫! 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20일 월요일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21일 화요일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22일 수요일 "여성 문화 다시보기"

초콜이 만난 문화평론가 정이 그 이름으로도 불리는 페미니즘 옹호
정체적이고 상대적인 여성의 반성문록 이야기
침울 수 없는 성폭력의 가버울, 그리고 무거움
여성해 사범 대안적 삶과 세계를 만드는 원천이 되는 페미니즘

2004. 9월 19일 목요일

02 제7회 여성제 여는 글

04 제7회 여성제 프로그램 소개

07 20일 월요일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여성에게 사소한 공간을 허하라 • 8
 숨 쉴 사람 모여봐-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음 언니네 www.unninet.co.kr • 10
 어느 찬란했던 밤의 기억-달빛사위에서 걷고 웃고 소리 지르다 • 12
 <강연> 여전히 아직도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 - 연세살인과 여성인권 • 14
 <강연 속 영화이야기> 사라진 여성들 Missing Young Woman • 16

17 21일 화요일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여성의 자급과 재생의 사회를 위해 - 대안월경대운동에 대한 작은 보고서 • 18
 <강연>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구성 의 권리 • 21
 <강연 속 영화이야기> 거북이 시스터즈 • 24

25 22일 수요일 "여성 문화 다시보기"

Play Again! 주목받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뮤직실롱 • 26
 <강연>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 28
 <강연 속 영화이야기> 독일자매 • 30

CONTENTS



32 흐름이 만난 문화&문화 쟁이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 페미니즘 쟁이

34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38 썰의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친구

40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랑의 반성폭력 이야기
 참을 수 없는 성폭력의 가벼움, 그리고 무가름

42 단단의 여성주의 만화

44 여성학 서평
 대안적 삶과 세계를 만드는 원천이 되는 페미니즘

47 남성이 바라본 세상
 한국 남성들의 이기주의



멀리서 가까워서
 낮은 신음소리, 탄식소리, 비명소리
 그냥 스쳐들어야 하는 건가봐
 그저 밤처럼 새카맣게 둔해져야 하는 건가봐
 허락받은 만큼만 분노하고 허락받은 만큼만 의심하면
 그 소리들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테니까.
 아등에 묻힌 듯, 무감하게 웅크려 있으라고
 ...누구에게서 들었지?

하지만 이건 뭘까?
 귀를 막아도, 눈을 막아도, 입을 막아도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말할 수 있는 것들
 틈새에서
 어지럽게 따듯하게 피어오르는

데워지고 있어, 흔들리고 있어,
 내게서 피어오른 것 처럼
 그녀들에게서도 피어오른
 그 무언가
 죽제같은
 공포를 깨고 무감을 대우고
 비명 대신 소란한 웃음이 올라오는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의심하고
 마음껏 상상하는

밤을 가로지른 그녀들이
 내게로 부터 빠져가고,
 내게로 흘러오며

불씨를 품고 날고 있어
 길처럼 날고 있어

제7회 여성제

“笑女流濫|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여성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이제 여성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사회라고 낙관한다. 여성 스스로 재빨리 알아서 처신하면 다 좋게 좋게 풀릴 거란다.

그러나 아무리 재고 또 재어보아도 현실은 그렇게 여성들에게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 실은, 여성들이 발 딛고 서서 바라보는 그녀들의 일상은 저만치 멀어져있다. 현실에서,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순간순간을 파고드는 폭력들과 그녀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언사들이 난무하는 것.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어느 누군가의 방 한 구석에서 그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희생당하는 것. 성폭력적 언어에 어렵게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했다가 미친년 취급을 당하는 것 -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여성들이 그녀들의 통제력 밖에 있는 구조화된 폭력에 의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담아내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수면 위에서 낙관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처한 현실세계에 대한 성찰이 부재한 채로 유포되고 할 때가 많다. 아내폭력, 성매매, 이성애적 가족주의, 편견에 의한 차별, 성폭력, 여성혐오범죄... 여성의 '위상'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이미 여성이 밟아 디딘 현실과 그처럼 공허한 단어 사이의 간극을 떠올리면 그것은 또 얼마나 커다란 것이던가. 이와 같은 분열, 이와 같은 폭력은 여성에게 극단적인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일상이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성들은 발 디딘 땅에 속박되기를 거부하고 이러한 폭력적 현실에 대항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꾸려왔고, 또 꾸려낼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걸어 올려, 기존의 질서를 진지하고 단호하게, 한편으로는 가볍게 전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 안에서의 유희가 아닌 결이 다른 대안적 상상력을 펼쳐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의 일상에 침입해 있는 현실세계는 여성의 욕망과 상처에 민감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의 역사-삶의 행적-를 쓰고 읽기 위해 준거로 삼던 이성애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틀과 관계를 해체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여성의 대안적 상상력이다. 어떻게 새로운 삶의 원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에게 온전히 그녀의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 짊어내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여성을 뒤흔들고 분열시키던 폭력적 현실에 강박되지 않고도 그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삶에 동의 없이 침입해 들어온 세포들이 미처 생각내지 못했던 놀라운 소물들과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찾아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욕망해온 다른 여성들과 나눔으로써 여성들은 비로소 힘을 얻는다.

여성의 역사를 재발굴하고, 여성의 새로운 몸을 직조하고, 그녀가 자신 안에서 흘러넘치되 정의되지 않은 욕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언어들을 찾아내야 할 시간이다. 무엇이 답답했는가. 극에 달한 그녀 안의 소란스러움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매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여성들의 모습에 자신을 되비추어 보며, 그녀들의 한 때는 잊혀졌던 웃음과 커다란 에너지를 더듬으며 자신을 다시 정의해볼 때이다.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유의미함을 만들어내는 지 관찰해보고 그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것-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는가. 온메되고 버려졌던 그녀들의 목소리, 그녀들이 손잡는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자.

들리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 진공의 상태에 고립되어 힘을 채 얻지 못한 그 투명한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 여성들에 의해 제 빛을 찾고 또 다른 빛깔들과 융합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순간을 하나하나 붙잡을 제7회 여성제, “笑女流濫|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에서, 우리들 제각각이 자신의 역사를 유쾌함과 명랑함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리하여 여성 스스로의 언어로 다시 씌어진 색다른 행적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여자친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숨기고 있던 엉클고도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축제에 오는 기분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여성들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See Said**



제7회 여성제

“笑女流瀝|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20

일요일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강연>

범죄와 여성인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 + <사라진 여성들>상영

6시 30분 위당관 B09호 / 강연: 권김현영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혐오범죄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죽음에 대해 이 사회가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녀들과 앞으로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곡 및 추측 보도로 일관한 선정적인 언론들,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수사를 위해 충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찰과 정부, 가해자와 더불어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인지도 모른다. 멕시코 국경에서 살인과 납치로 사라진 여성들에 아무런 주목을 하지 않는 정부와 경찰, 언론 등의 공모를 날카롭게 추적하는 <사라진 여성들>(멕시코&미국/2001/Lourdes Portillo/75분) 상영과 이어지는 강연을 마련하여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여 폭력을 구조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한다.

<개막제>

여성에게 폭력 없는 공간이란!

12시 민주광장

개봉 박 뒤 제7회 여성제 “笑女流瀝|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의 막을 올리는 생기 넘치는 개막제 행사, 여성제의 문을 열어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짚어내는 시간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성폭력과 요즘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연쇄살인사건 등 여성혐오범죄를 비롯한 현실 세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일침을 가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이다.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는 자보전과 릴레이 한줄 답글 달기
- 현실 세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것을 구조화하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보전
- 현실 세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지지의 한마디' 릴레이
- 그리고 또 하나, 여학우들을 위한 생리대 주머니, 반성폭력 뱃지도 준비되어있다.

피자매 연대와 함께하는

「나에게 꼭 맞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워크샵」

1시 ~ 4시 학생회관 3층 / 푸른샘

'생리는 불결해'라는 여전히 지속되는 편견과 함께 여성의 몸에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 이중으로 불편했던 일상을 대안생리대 만들기로 전복해 보는 시간이다. 만들어진 대안생리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소비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피자매 연대와 함께 속닥속닥 수도도 나누며 여자친구와 함께 예쁜 대안 생리대를 만들어보자.



21

일요일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강연>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 구성의 권리 + <거북이 시스터즈>상영

6시 30분 위당관 B09호 / 강연: 타리 (장애여성 공감 운영위원)

이미 너무나 많이 나온 이야기인 듯 하지만, 아직 이성에 중심주의와 단일한 핵가족 모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정상가족' 담론, '정상가족' 담론은 여성의 삶에 굴레로 작용하고, 대안적인 '혼자 살/함께 살'과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되고 있다. 게다가 2005년 1월부터 '정상가족'에 대한 통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는 '건강가족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이성에 중심적이고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 모델은 지금 현재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여성들의 대안적인 '함께 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거북이 시스터즈>김상과 강연을 통해, '정상가족' 개념의 문제점-장애여성성과 성소수자 여성을 이성애적 핵가족 안에 감추어 두어야 하는 존재로 대하는 문제, 장애여성성과 성소수자 여성의 다양한 '함께 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가족을 정형화하고 정의하려는 인식이 있다는 것, 그 시도 자체가 다양성과 배척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정상가족' 개념에 균열을 내고 대안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7회 여성제

“笑女流濫 | 소녀유람 - 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22

일 수요일

“여성 문화 다시보기”

Play Again!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뮤직살롱 +
여량의 타로점

1시 ~ 4시 학생회관 3층 / 푸른섬

대중가요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재현되거나 인형 같은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곳곳이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어온 많은 여성 뮤지션들이 존재해왔다면! 박선주, 김원선, 임현정 등 남성 주도의 대중가요 판에서 잊혀졌던 그녀들의 독보적인 음악세계를 엿볼 기회이다. 감동으로 전율케 하는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맛있는 커피 및 차와 함께 하는 뮤직살롱에서 여자친구들과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티타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강연>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 글로벌 자본주의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6시 30분 워당관 B09호 / 강연: 김영옥 (문화평론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몸으로 사유하기, 타자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는 지금,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글로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공모하는 가운데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식의 여성 판타지는 미학이란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분명 그곳에 여성은 없다. 여성은 살아있고 싶다. 여성 스스로 문화, 역사를 기술하는 '주체'로 선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며, 또 다른 너를 살려내는 것이다. 몸의 사유를 말하는 동시에 '서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여성이 문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 이 강연을 통해 우리는 여성 스스로 말하고 그려내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환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 empower 할 수 있기를.

* 강연 중 영화<독일자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시간도 마련될 예정

笑女流濫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여성에게 사이버 공간을 허하라

술집 사람 모여 봐 -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www.unninet.co.kr

어느 찬란했던 밤의 기억
- 달빛시위에서 걷고 웃고 소리 지르다

<강연1>

<범죄와 여성인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

<강연 속 영화이야기 1>

사라진 여성들 Missing Young Woman

20

월요일

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여성에게 사이버 공간을 허하라



제7회 여성제 美女流奎 | 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사이버 공간은 점점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미니홈피, 블로그, 메신저, 지도검색, 지식검색..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관계망이 사이버 공간에 축적될수록,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사항일 수 없게 된다. 수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심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촌'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축적과 교환, 정보에의 접근이 자유롭다는 명성답게, 사이버 공간은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의 내용은 과연 정말 쓸만한 것인가? 특히나 당신이 여성이라면,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정보의 공유, 관계망에의 접속을 위해 어떤 위험과 불쾌감을 감수해야 했던 기억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날 메일함을 열어서 쌓여있던 스팸 메일들을 신고하고, 삭제했지만, 다음 날 열어본 메일함은 다시 스팸메일들에 장악 당해있다. '잘 지내니?' 따위의 알파한 속임수를 쓴 제목에 속아서 처음 한두 번 지 메일들을 클릭했던 순간들엔 심중 팔구 포르노 사이트가 화면 전면이 펼쳐졌다. 이제는 제목 한번 훑어보고는

스팸신고를 해버리지만, 신고가 제대로 되진 않는 건지. 메일함에 쌓이는 스팸 메일의 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다시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다. 화면 곳곳에 현란하게 배치된 광고창은 tv에서, 신문에서 그러하듯 내게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권한다. 사이버 공간은 이렇듯,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현실 공간의 답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이 활약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작년 겨울 즈음에 여자친구들 사이에는 '온라인 변태'에 관한 흥흥한 소문이 떠돌던 적이 있었다. '연세인정보공유' 커뮤니티(이하 연정공)에 각 학교 도서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다리를 도촬한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소문을 듣고 연정공에 접속한 나는 게시물들을 읽으며 아연실색했다. 2만 명에 가까운 회원수를 보유한 연정공에는 실제로 그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촌의 성매매 업소, 포르노 사이트에 관한 정보, 여성 비하 발언과, 왜곡된 여성상을 담은 글들이 온갖 욕설들과 가벼운 통신 용어에 섞여 흥미꺼리로 포장되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그 도촬 게시물은 비난받고 삭제

되어야 마땅했다. 그 게시물은 사생활 침해다가,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각을 유포시킴으로서 도촬을 당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게시물을 보는 여성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한마디로 말해 여성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을 정상화하고 희화화하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게시물을 지우라는 항의의 리플 아래 '유일한 낙이오, 지우지마시오' 라는 등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듯 흥미진진한 어조의 리플이 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범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는 욕설과 쓰레기 같은 흥미꺼리들이 섞여있는 반면, 실명게시판은 예의바른 언어들로 수업이나 종교 물건에 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이다.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의 사용자 다르나?'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이 놀라운 이중성은 익명성이 얼마나 무섭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익명성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계 몇대로 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권력관계로 인해 말화되지 못하는 소수자의 경험이 이야기될 때, 권력과 폭력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나 쓸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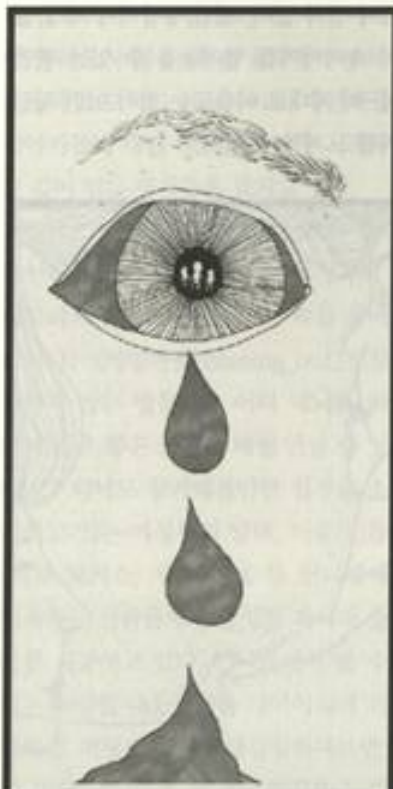
래의 뜻으로부터 탈 맥락화 되어 일상의 권력과 폭력을 성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성찰하지 않는 스스로'를 자신만만하게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또한 여성에게는 한층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여성에게 곧 성폭력의 위협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출된 전화번호는 손쉽게 음란전화에 이용된다. 폰팅 사이트에 자기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게시라도 되면, '어쩌나 많은 남성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들을 하시는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끊임없이 음란전화가 걸려온다. 그리고 스토킹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매일 뉴스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음란전화는 단지 불쾌한 사건 이상의, 공포가 되곤 한다.

여성의 신체를 분절하고, 대상화하고,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포르노 산업은 무단으로 화장실, 탈의실, 비디오방 등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유출해낸 여성의 개인정보를 제목에 붙여 몰래 카메라를 유통시키고 있다.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피해여성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대상화되어 음란전화와 같은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거 정말 니 비디오나?'는 식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라는 그 범죄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에 시달리게 된다.

현실 공간에서 일상의 권력망이 성찰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되듯이, 사이버 공간 역시 마찬가지

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남성 중심적 문화는 온존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에 대한 사이버 범죄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여성의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음란전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다. 하지만, 익명성과 증거 삭제가 용이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신고로 범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물론 여성에 대한 범죄를 수많은 사건 신고 서류들 틈에 끼어있는 종이 한 장 정도의 심각성으로만 인식하는 경찰기관의 인식도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데에 한 몫 한다). 이런 때에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사이버 상의 증거들이 삭제되기 전에 printscreen 키를 이용해 증거화면을 캡처해 그림판에



파일로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인 지식들이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연정공처럼 익명성을 이용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희화화하고 정상화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익명게시판을 실명게시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연정공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은 수차례 문제가 되어왔다. 그때마다 프리챌과 연정공 운영자에게 많은 항의가 있었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 나면(운영자에 의한 것이든, 혹은 작성자에 의한 것이든)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듯, 근본적인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그 덕분에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유지 되어 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정상화된 정서로 퍼져있는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마초들의 글에 일일이, 성의 있게 답변을 달아 상냥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기? 물론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익명성에 자신을 숨긴 채 성찰하지 않으려는 마초들은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두 번 그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해 본 여성들은 그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내 힘만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공간, 익명성이 폭력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면적인 관계에서는 나눌 수 없는 고민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데 쓰이는 공간, 여성의 언어가 통용되는 공간을 찾아내고 만드는 일이 아닐까. **See Said**



숨실 사람 모여 봐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www.unninet.co.kr

제7회 여성제 笑女流齋 | 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이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만큼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투자하게 된다. 사이버공간도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 현실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불편함, 억울함 같은 감정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쉽게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험담, 음담패설, 정보누출과 같은 폭력이 훨씬 더 난무하다. 또한 그 속에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 폭로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들, 혹은 잘 드러나지 않는 성적권력을 이용한 폭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다고 해도 어디에서든,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것들이라 언제 불쾌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평소 이러한 불쾌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발길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마음 든든한 일이다. 언니네는 그런 점에서 그 공간 자체가 나에게 의미 깊었다. 익명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판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알고 있다는 든든함.

그러나 또한, 언니네는 그런 든든함

을 넘어서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여자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수다 떨면서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유용한 정보들과 섬세한 감수성들을 갖고 있다. 특히, 나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혹은 그런 나의 신상명세를 밝히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 고민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언니네의 큰 매력이다. 익명이라는 특성-다른 소개나 절차 없이, 편한 부담이나 걱정 없이 속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함-이 제대로 이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이월드에 일촌이 있다면 언니네에는 의자매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일촌과 의자매의 기능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의자매가 갖는 성격은 특별하다. 우선 그 이름부터가 '의자매'이니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함을 부여해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니네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자매를 맺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촌, 친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으로서 여성들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도 있는, 보다 더 밀접한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어쩌면 소홀히 했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갈구했는지 모르는 여자친구들끼리의 소통을 의자매 맺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게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식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지식공유사이트'인 지식놀이터는 회원들이 직접 모르는 지식과 고민을 털어놓고 회원들이 직접 답글을 달아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는 알기 힘든, 혹은 관심 없는 궁금증들-특히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알 수가 있다. 직접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니네의 경험



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성스런 질문과 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논쟁점이 될 수 있는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작업방방 코너에서는 언니들이 직접 고르거나 제작한 사진, 그림, 소리, 영상들을 즐길 수 있다. 문화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작품들이 아닌, 언니들의 혹은 여자친구들의 친밀한 컬렉션에서 나에게 더 잘 맞는 소품들을 찾아서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언니네에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휴식공간의 차원을 넘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생존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른 사람들의 그 공간은 어떤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언니네의 자기만의 방은 그런 솔직담백한 공간과 시간을 살짝 훑쳐볼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언니네에 올라와 있는 글과 그림, 소리, 영상들을 보고 있다보면 모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사람을 직접 대하고 말

을 하는 것과 누군가가 쓴 글을 읽는 맛은 각각 다르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맛은 특별하다. 언니네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쉽고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읽는 맛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차갑고 거칠지 않게, 따뜻하고 섬세하게.

매일 생각해볼만한 주제를 진지하게 짚어보는 기획특집도 언니네에서 빼먹지 말고 지나가야 할 코너다. 다른 어디에 올라오지 않을, 혹은 올라왔다면 마초들과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피곤해질 이야기들에 대해 정확한 논점을 지적하고 깊이 있는 생각들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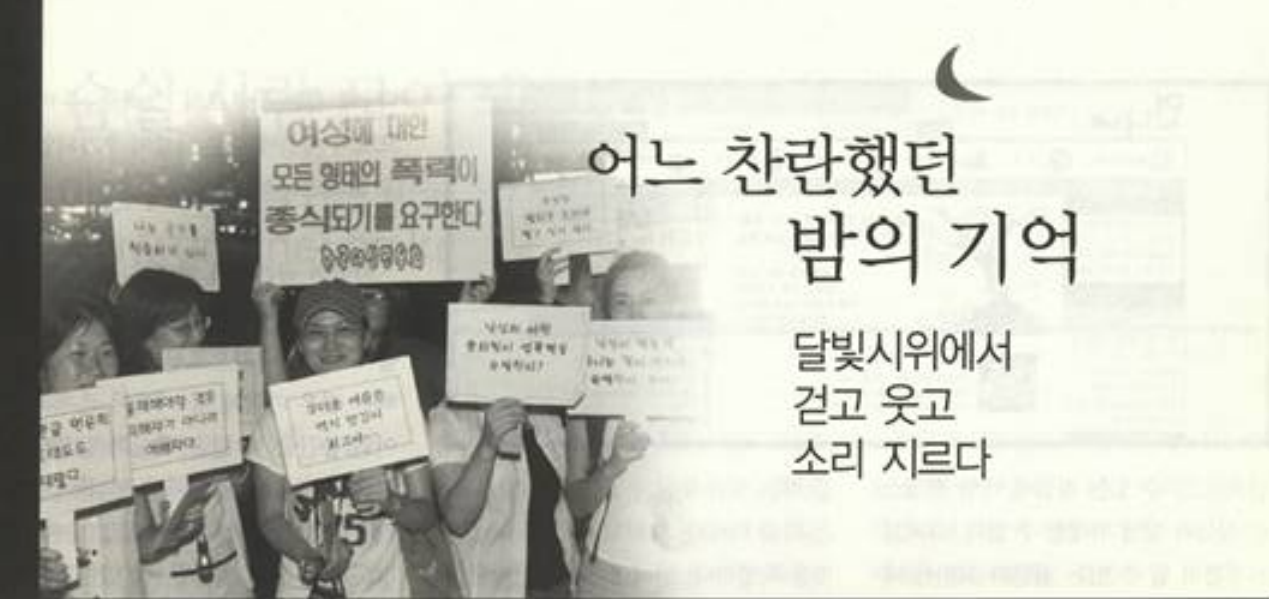
〈한살 더 먹기, 그 불안과 설렘〉〈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비정규직, 여자라서 만만하나?〉〈친구, 속을 들여다보다〉〈커밍아웃 coming out〉〈침묵하지 않는 말들〉 등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좋은 글들을 매일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참가해볼만한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여성주의 달력, 이슈/인물/리뷰 포커스, 생활 정보 등 언니네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니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물들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다보면, 내 일상들이 조금 더 풍성해짐을 느낀

다. 내 깊은 곳으로의, 그리고 내 바깥으로의 시선에 다른 색깔이 추가되었다고 할까.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히 침범당해야 했던 내 즐거울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언니네를 소개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어쩌면 언니네는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기에 그나마 이 정도의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업적인 것들이 전혀 유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과 관리자의 힘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메인화면을 보고 처음엔 놀랐을 정도다. 그래서 언니네는 디답회원과 도움회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별로 일정한 회비를 지불하면 도움회원이 될 수 있고, 그 회비로 언니네는 운영된다. 회비는 언니네의 발전을 바란다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돈이지만, 어렵다면 '회비품앗이'로 언니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 내가 상상하던 공간을 눈앞에 실현시켜 준다면 사이버 공간이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에 조금 더 많이 억울해하자. 사이버 공간은 인간이 창조해냈고, 인간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기에 조금 더 많이 억울해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에서라도 언니네와 같은 공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수명이 10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See Said**



제7회 여성제 笑女流會 | 소녀유람-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어느 찬란했던 밤의 기억

달빛시위에서
걷고 웃고
소리 지르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었니?"

"잘 다녀왔냐"라는 인사보다는 먼저 뛰어 나오는 아빠의 질책에 또 질색한다. 지난 5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그 빈도가 더 잦아졌던 그 말, "일, 뭐, 좀, 다, 너, 라"

실은 밤거리의 성폭력과 살인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그 공포와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뻣속깊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밤길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찰이나 정부, 혹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그저 선정적인 시선으로만 일관하는 언론을 바꾸기보다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쉬

운 해결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난 밤길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유영철 사건과 같은 일련의 연쇄살인사건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이나 주위의 늘어난 우려에 저항하다 지친 나는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말지," 아니, "아예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버리게 되었다. 물론 내가 귀가시간을 늦추거나 집에 온거한다고 해서 밤길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밤길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그들의 밤을 반납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유유히 행동반경을 넓혀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 사이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밤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은 여성의 부주의함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리고 가해자를 저지하지 못하고 여러 모로 방관하며 결국 폭력을 구조화하는 사회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나의 밤은 밤이 아닌가? 연쇄살인사건이 속속들이 터지고 언론이 "아담한 여자, 비오는 날 흰 옷 입은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추측성 기사들을 남발하면서 여성들에게 무력감과 공포감을 자동적으로 학습시키고 스스로 당당해지지 못하게 할 때 내 안의 소란스러움은 극에 달했다. 그 무렵 달빛시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처음 달빛시위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조용히, 하지만 마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환학생 갔을 때 "Take Back The Night"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행사와 밤길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촛불 행진 등이 마련되는 모습을 보고, 그 때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심정에 한순간 언어가 부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8월 13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을 포함한 종로 일대에서 여러 여성들과 함께 하며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는 힘찬 구호 아래 진행된 달빛시위는 그야말로 여성 스스로 누구에게도 제재 받지 않고 밤길을 온전히,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경찰, 언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들 자신들이 서로 어울려 밤길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는 일찍 들어가라며 구호도 목청껏 부르고 보무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로 한복판을 걷기도 했다. 희생당한 여성들을 추모하는 의미와 함께 밤길 가해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귀신을 상징하는 소복을 입고 종로를 행진하며 행인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그 자체로 뿌듯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행진하는 동안 "나와 여자친구들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밤길 위협에 대처하는 팁이 담긴 매뉴얼을 나누어주기도 하면서 행진했던 우리에게 공감의 눈빛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지지의 힘을 보내는 여성 행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달빛시위가 여실히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힘주고 받기의 자리라는 것을 절감했다. 밤길을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걸을 수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이었다.

행진은 국세청 앞에서의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우리가 입고 있던 소복을 벗어서로 묶은 다음 큰 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성을 통제하는 구조로 상징화한 후 단호하게 가위로 잘라 빠져나오는 퍼포먼스에서 또 한번 참석한 여성들의 엄청난 환호가 일었다. 이후 행사를 정리하는 판에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야단치기 위한 "다같이 욕하기" 순서를 통해 인사동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그 때까지 풀지 못한 답답함과 짜증남을 대부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좀 많이"를 부르며 가해자, 난 내가 좀 많이 싫다"고 외치는 뿌듯한 희열의 순간도 있었다. 물론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든든한 힘이 되어주던 주위의 여성들 때문에 더욱더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달빛시위가 있던 그 날의 찬란한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다. 여성들 스스로 제 자신에게 밤을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찌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로 구석구석을 돌돌 뭉쳐 돌아다녔던 그 미친듯하게 근사했던 밤, 아무도 내게 감히 "일찍 좀 들어와라"라고 명령하지 못했던 밤, 소복자락 펄럭이며 여성들을 위협하던 술취한 남성 행인들을 뚫고 음습한 골목을 휘저었던 그 밤, 구호와 분위기를 돋우던 동동 북소리가 요란했던 그 밤, 물론 이 달빛시위가 미래에

있을 법한 밤길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출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비롯한 여성들에게 가해져왔던 폭력과 이를 좌시한 정부와 언론에 드러내놓고 편지를 날림으로써, 그리고 언제라도 손 내밀어주며 정서적으로 밤을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매"들을 발견함으로써 내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가 강하게 버티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폭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화하는 동시에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폭력을 구조화 하던 이 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처럼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달빛시위를 통해 가해자와 이 사회에 "네가 잘못이다"라고, "여성혐오범죄에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목소리를 놀랍도록 크게 띄울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내가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비롯한 여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힘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달빛시위가 보다 다양한 놀이판을 끌어안고 매년, 모든 곳에서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밤길을 자유로이 걸을 수 있기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시선에 일침을 내리꽃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아우성을 보듬어 안는 그런 자리가 이어지기를 두근두근 기다려본다. **See Said**

by 고희 약간의 계엄령과 치밀함을 주특기로 삼아가는, 언제나 유쾌민이고자 하는 여성주의자

2011년 8월 13일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



사라진 여성들 Missing Young Woman

멕시코 & 미국/2001/루데스 포르티요 Lourdes Portillo/75분/다큐멘터리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간 범행 지역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던 송강호의 그 눈길 말이다. '살인의 추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한 그 섬뜩한 공포의 눈빛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단 우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여성들>은 아직도 계속 젊은 여성들이 죽어가는 멕시코의 국경지대 후아레스(Huarez)를 찾아간다. 이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납치,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과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 경찰, 언론의 묵인 아래 똑같은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된 어린 소녀들, 그리고 사막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는 시신들.

이 물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배후에는 미국과의 접경지대로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마킬라도라, 세계화, 마약거래와 고위층의 연루, 지하 거대 조직, 이 핵심 단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

는 이유이자, 감독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의 실마리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의 조립공장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식민지 시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방앗간에서 옥수수를 빻을 때 절구통에 붙어 있는 옥수수 가루라는 뜻이다. '마킬라도라'란 미국이 옥수수를 들고 온 손님이라면, 멕시코는 미국의 옥수수를 빻아주고 절구통에 붙어있는 찌꺼기 가루만 가진다는 다소 냉소적인 비유인 셈이다. 외국 자본에 혜택을 주는 경제특구인 마킬라도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은 대부분 미국계 기업으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단순 조립공정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선호하고, 따라서 미숙련 여성 노동력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가난하고 어린 여성 혹은 여자아이들은 마킬라도라에 일자리를 얻는 것이 꿈인데, 여기에서는 마약거래가 일상화되어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 주지사는 연쇄살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여성들에게 빚짓게 귀가하지 말라는 방안을 내놓는다. <사라진 여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실종되고 살해되는 여성들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경찰, 아들과 모두 한 통속인 언론, 정부가 바로 공범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 <사라진 여성들>은 움울하고 서글픈, 답답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이자 비기이다. **See Saw**

▶ 영화와 소개글을 후원해주신 인권영화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먼 곳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Lourdes Portillo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 흐르고 넘치다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워크샵소개글>
여성의 자급과 재생의 사회를 위해
- 대안월경대운동에 대한 작은 보고서
<강연2>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 구성의 권리
<강연 속 영화이야기 2>
거북이 시스터즈

21

화요일



피자매 연대와 함께하는 「나에게 꼭 맞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워크숍」

여성의 자급과 재생의 사회를 위해

- 대안월경대운동에 대한 작은 보고서

1. '일회용' 일상의 작은 균열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듯이 나 역시 대안생리대를 알기 전까지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월경을 '처리'하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그날이면 터져 나오는 붉은 피가 팬티에 비치자마자 달려가는 곳은 슈퍼마켓 아니면 약국이었는데, 중고등학교의 예민하던 시절에는 계산대 위에 생리대를 올려놓기 민망해서 약국, 그것도 여자 약사가 있는 약국을 찾아 전전하던 기억도 있다. 캐나다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대안월경대와 키퍼라고 부르는 월경컵은 그러한 일회용 일상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어려운 암호들을 독해하며 읽은 사회과학서적들, 페미니즘 관련 책들, 포스트 무엇무엇 하던 이론들이 단순한 면조가리로 만든 그 월경대 앞에서 빛이 바라는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파놓은 지식의 땅이 이미 거기에 있는 일상의 실천 앞에서 다시 짜여지는 기분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대안월경용품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것저것 직접 사용해 보기도 하고, 여기 저기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면서 2003년 가을 쯤에 피자매연대(「피자매」라는 이름은 캐나다의 대안월경대 공동체인 bloodsisters/bloodsisters.org를 따서 지은 이

름이다.)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월경페스티벌거리 축제 때 탐폰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캐나다 친구와 함께 탐폰은 독이다! 물 외 치기도 하고, 먼 월경대와 키퍼를 궁급해 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쉬도록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 후로 수차례의 워크숍이 있었고 현재는 그러한 작업들이 감자뿌리처럼 또 다른 워크숍들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사람들이 던지는 여러 질문에 이런 저런 궁색한 대답들을 늘어놓으면서 발전시키게 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대안월경대는 무엇에 대한, 혹은 무엇에 저항하는 대안이나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탐폰과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대안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탐폰과 일회용생리대가 가져온 해악은 무엇일까? 첫째 탐폰과 일회용생리대는 여성의 몸에 해롭고, 둘째 생태 환경을 파괴시킨다. 특히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의 근간인 숲을 파괴하고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셋째 탐폰과 일회용생리대는 여성 억압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여성들이 계속해서 남성중심의 산업 자본에 의존하여 여성 자신의 DIY(Do It Yourself)적 실천을 방해하고 월경을 자신이 아닌 남(男)이 관리하도록 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숲이 펄프를 위한 플랜테이션으로 획일화되듯 여성의 생활과 문화 역시 빈곤해지고 획일화된다.

최근 대안월경대가 알려지면서 여기 저기 연생리대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거의가 "웰빙"이다. "대안월경대"에서 "대안"의 의미가 탈각되었을 때 나오는 대안의 상품화현상이 바로 이 "웰빙"이다. 나는 대안월경대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자급과 재생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안월경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2. 무엇에 저항하는,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

1980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36명의 여성이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일명 TSS)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월경중이고 샘플로 받은 월라이라는 신행 탐폰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월라이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과학자들은 그 탐폰에 들어있는 흡수력이 높은 합성섬유가 독성쇼크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도상 구균의 감염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 FDA

는 탐폰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로 탐폰회사에 맡겨버리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흡수력이 낮은 탐폰을 이용하라'는 권고를 함으로써 탐폰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을 사용 여성들에게 떠넘겨버린다. 안전한 흡수력에 대한 표준이 세워진 것은 월라이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1990년의 일이다. 그 10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6만 명의 여성이 독성쇼크증후군에 걸렸다고 추정되고 있다. (Pulling the Plug on the Tampon Industry, Karen Houppert, Village Voice, February 7, 1995. 이 글은 미국 여성위생산업계와 FDA가 어떻게 탐폰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은폐했는지에 대해 집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각종 탐폰, 생리대 광고를 통해 여성위생산업이 조작하는 여성 억압적 가치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http://www.spotlight.org/>에 들어가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독성쇼크증후군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큰 홍역을 치른바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 포장지에 독성쇼크증후군을 주의하라는 간단한 문구뿐, 흡수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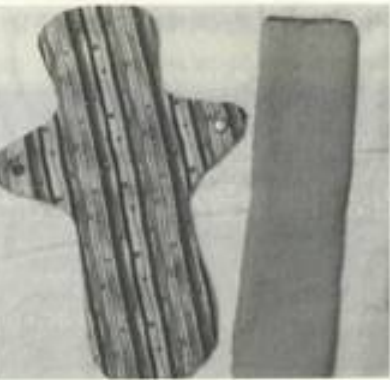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점점 탐폰을 쓰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월라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또 높은 흡수력을 자랑하는 국산 탐폰 광고들을 보다 보면 탐폰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불감증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듯 보인다.

또 다른 심각한 여성생리용품의 문제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탐폰에는 레이온이 포함되어 있고 레이온은 나무 펄프로 만들어지는데, 이 나무 펄프를 염소 표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증, 불임증, 난소암, 유방암, 면역체계결함, 골반내염증질환 등 각종 여성 생식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미국의 FDA는 계속해서 탐폰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은 아주 극소량이어서 여성의 몸에 전혀 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식약청도 이 말을 맹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오랜 기간 계속해서 접촉하게 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월경인생동안

흡수력이 강한 여성의 질 세포가 계속해서 탐폰의 다이옥신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한다면, 탐폰과 일회용생리대가 보편화되고 난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암이 혹시 이 다이옥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난다. 그러나 탐폰과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거의 탐폰과 생리대회사 자체에 떠넘겨졌고 객관적 있는 독립연구기관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도 탐폰과 일회용생리대에는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리대에 환경호르몬 물질 중의 하나인 폴리에틸렌이 들어있다. 생리대를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고질적인 국부 염증, 가려움, 질염 등을 호소하고 있고, 대안월경대로 바꾼 여성들은 그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거나 없어졌다고 말한다. 한국여성민주회는 생리대 제조사에 생리대에 포함된 원료와 화학물질, 염소표백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제조 비밀이라고 일축했다.

일회용생리대와 탐폰은 여성의 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그 폐해가 심각하다. 생리대와 탐폰의 주성분인 펄프를 얻기 위한 벌목으로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의 기반인 숲이 황폐화된다. 또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의 낭비와 오염이 초래된다. 또 인구의 절반이 매달 내놓는 엄청난 양의 생리대 쓰레기는 소각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유독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 매립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유해물질들이 쓰레기에서 흘러나와 땅과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 일회용생리대와 탐폰은 여성의 몸과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생리대가 여성의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성억압적가치를 더욱 확산시킨다. 일회용생리대와 탐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들 생리대 회사의 타겟은 '일하는 여성'이었다. 일회용생리대 판촉광고는 여성들에게 직업세계에서 월경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는데 있어 거주장스러운 방해물뿐이라고 속삭였다. '일회용 생리대 = 여성의 자유'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계속된 생리대의 업데이트, 초박형 생리대의 등장, 탐폰의 대중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탐폰과 일회용생리대가 대중화, 일상화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여성억압적인데, 첫째는 여성들이 스스로 월경이라는 '열등함'을 극복하고 남성처럼 월경이 없는 듯이 일해야지만 남녀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다시 말해 남녀불평등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았다는 점이다. 그 전제에 의해 사회가 원천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린다. 둘째, 이처럼 감쪽같이 월경을 처리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한다는 점이다. 비용은 단순히 생리대를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데서 오는

비용, 환경에 대한 비용들도 포함된다. 일회용생리대가 강조하는 깨끗함과 감쪽같음이란 눈부신 하얀색을 만들 때 사용하는 표백약품과 초강력 흡수를 위한 각종 첨가물 땅 속에 버려도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왜 피자매 "연대" 인가?

이러한 대안의 의미를 짚어가다 보면 결국 여성의 몸과 그들의 삶의 근간인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세력의 중심에 여성위생산업, 펄프산업, 다국적기업들이 떠오른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 민중들의 자급력과 재생력을 박탈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의 보호망들을 제거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해낸 "잉여"가 자신들의 자본력과 기술력 때문에 이루어진 가치생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성, 환경, 이주민, 제3세계를 식민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안월경대 운동은 '월경'이라는 상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피자매연대는 대안월경대운동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자급적, 재생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맥락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맥락화는 단순히 답론화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 환경, 반전, 평화, 이주노동자, 철거민, 빈민, 농민, 시민운동들과 실질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피자매연대의 대부분의 활동은 이러한 연대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피자매연대가 단순히 피자매가 아닌 피자매"연대"인 이유이다.

대안달거리대 만들기 워크샵에서 피자매와 연대하세요!

피자매연대와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지만 먼저 워크샵에 참여해서 함께 대안생리대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7회 대안달거리대 만들기 워크샵이 6월 27일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각종 월경대, 월경컵, 해면과 같은 대안월경용품들을 구경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세요. 또 직접 천과 바늘을 준비해서 나만의 대안월경대를 만들어 봐요. 자세한 정보와 대안월경대에 대한 정보는 bloodsisters.gg.gg, 또는 bloodsisters@nate.com으로 문의하세요. See Sud

by 매네(피자매연대) anamellee@hotmail.com
bloodsisters.gg.gg

피자매 연대와 함께 하는
「나에게 꼭 맞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워크샵」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비는 2000원이며 워크샵 시간 동안 직접 만든 대안생리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9월 11일(토)까지 happyfem@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강 연 # 2

가족주의를 넘어서 '가족구성'의 권리

21일 화요일 6시 30분 위당관B09호

타리 (장애여성공감 운영위원)

1.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자고로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한 이후에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고
재생산을 통해 가족을 유지하고
대를 잇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가족해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넘치고 넘친다. 사람들은 이혼을 증가, 출산율저하, 황혼이혼 등을 지적하면서 출생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걱정해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 배타성에 있다. 사회의 모든 제도가 소위 '정상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때, 편부모 아이, 혼자 사는 여성, 레즈비언커플의 동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장애여성들의 공동체와 같이 다양한 삶의 방식에 놓이거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쉽고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사회적으로 가족이 누리는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만다. 지금의 가족해체는 기존의 가족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일 뿐, 이혼을 증가하는 가족

해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제도와 정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정상가족 - 행복한 4인 가족'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그 정상의 기준은 누가 만들어졌는가. 혹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들의 그 작고 요상한 잣대로는 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은 단지 무시당해도 좋은 것인가.

부계혈통만을 잇는 제도, 모든 사람이 '부모'와 '이성의 배우자'와 '자신의 혈통인 자식'을 갖추어야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이성애중심적 핵가족 이데올로기, 여성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던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강요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가사노동과 양육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내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장애여성을 재단하는 비장애인중심의 문화, 여성과 '미성년자'를 남성가장으로 부터 보호받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은 철저히 은폐하는 가부장/군사주의적 사고 등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이상 - '사랑이 충만하고 안식을 얻는 가족'과 현실의 가족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가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평등부부 캠페인이나 소위 현명한 육아, 간헐적인 사회복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동안 가치관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사회변화와 연동해서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담론은 주류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 내려진 특정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이러한 담론은 법제도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을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들 - '부부의 날'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효도법' 등 - 이다.

2. 가족에 대한 법적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차원에서 나타나지만 강제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법의 인식을 통해서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하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되고, 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
에 입적한 자가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차별적이라는 점, 입적 여부로
가족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의 가족을 반
영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대표적으로 비판
받아왔다.

현재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안을 골자로
하여 논의되고 있는 민법개정안에는 호주
의 개념이 삭제된 새로운 가족이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
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
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정부는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민법개
정안의 취지에 맞춘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
지만 혈연중심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규정
이라는 점과 제도적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
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성애자간 결혼제도를 통해
서 대다수의 가족이 구성되고 있고 혈연관
계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러한 법적인 규정은 ‘법’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념적,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
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
구권 등을 명시한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보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건
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

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
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
본이념을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바
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되
지 않은,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비
혼, 장애인, 노인 등의 독신가구, 동성애
가족, 비혈연 공동체 등을 배제하고 있는
데 이 법에서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국민
의 권리 및 의무’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집단을 국민에서 배제시키
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채,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
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
가 개인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가족에게
퍼넘김으로써 가족이 건강하면 모든 개인
이 행복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
고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것은 가족구성원
의 복지를 가족 안에서 통상적으로 돌봄의
역할을 떠맡고있는 여성에게 고스란히 부
담으로 전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시민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
도가 가족에 대한 법적인 규정임과 동시
에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법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여성은 2등 시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혈연과 이성간 결혼제도로 구성된
가족을 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계

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은 ‘국민’에서 배제
되고 있다. 여전히 개인들이 가족을 중심
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근대’가 아닌
가? 라는 질문이 든다. 적어도 제도상에서
남성가장의 보호아래 있다는 가족 구성원
들과 ‘남성가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
람들에게는 그렇다.

3. 장애여성에게 가족이라는 것

“부모님 계시우?”

“네”

“그러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

“위험하게 왜 보호자도 없이
다니요?”

“아저씨도 밖에 다닐 때
보호자와 다니세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척박한 한국사회에
서 장애인은 누군가의 전적인 보호와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어
떤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지
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호는 권리가
될 수 없고 내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으
며 배제와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는 일일
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장애인
사이의 차이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다양
하다. 여기서는 장애를 어떤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보조를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권리가 있
는 것으로 규정한다. 장애로 인한 몸의 한
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장구나 사회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
체로 보호가 필요한 것, 의존적인 것이라

고 전제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어떤 가족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질
문은 합당한가?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가
족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정상신체’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사
회와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를 비판
적으로 바라보는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가
족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일수록 가족
은 개인들의 유일한 보호막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마한
가지로 장애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지
원과 책임은 가족에게 떠넘겨진다. 이것은
보통 장애를 개인의 불행, 불운으로 인식
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은 장애인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이다.
이것의 결과는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에서
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장
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어머니로
한정한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장애여성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장애아를 낳았다는 책
임, 비장애여성이라고 해도 자신의 잘못으
로 인해서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부채감속
에 돌봄 노동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
게 한다. 이것은 모든 여성의 몸을 통제하
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모든 여성을 미래의
어머니로 전제하며, 재생산 영역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큰 문제점
이 있다.

가족 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가족
전체의 불행이 되고, 가족이 장애인의 삶
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
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
지는 지원과 분배되는 자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일
때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
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평생 부모, 형제
자매에게 보호를 받으며 ‘수용’되거나 가
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성역할과 재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
장애여성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물어
지지 않는 질문-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가?, “성생활을 할 수 있나?” “아이는 낳
을 수 있나?”-과 답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4. 가족에 대한 장애여성의 선택과 도전

가족이라고 할 때 통념상 자신이 태어나
길러진 가족과 결혼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혈연가족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혈연가족과 시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조
건이라는 점일 것이다.

장애여성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
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장애여성이 자신
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
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
야 한다. 또한 그것은 가족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
한다. 누구든 부양과 돌봄을 받는다는 점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으로 이어지

지 않아야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와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
어야 한다.

현재 많은 장애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 자신이 선택한 누군가와 살아가는 것
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실험’
들은 사회에서 결혼을 할만한 능력과 조건
이 안되는 장애여성들이 어쩔 수없이 ‘선
택’하는 처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으로 지
원되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장애여성
이 포함된 가족에 대한 지원의 형태를 떠
거나 장애여성이 남성과 결혼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대부분인 것이다.
(장애남성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개개
인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가
족의 도리로밖에 가능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가족-국가
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적 인식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정상가족’은 누구의 이해인가? ‘자
고로 결혼제도가 만들어주는 올바른 기능
을 하는 단일한 형태의 가족’ 이외에 가족
을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무엇을 뜻하는
가? 그것에 대한 한가지의 답을 장애여성
의 목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남성가장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애)여성,
가족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여성)
인이라는 인식과 조건을 바꾸어나가는 것
이 가족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
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See said**



거북이 시스터즈

■ 기획 의도

장애여성의 일상, 삶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그로 인한 좌절감과 성취감... 장애여성의 삶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장애여성공감입니다. 서로의 삶의 공감하면서 장애여성인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정말 거북이일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는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른이지만 어리게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와 수십년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속도와 이야기에는 별관심기 가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우리의 몸은 보장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다.

■ 우리는 정말 다른 걸까?

내 몸에 맞는 물건을 찾고, 그것을 배치하고, 나를 도와주는 보조인력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일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달라서일까? 이 세상이 비장애인중심이 아니라면 그들도 끊임없이 우리처럼 특별한 일상을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있을까?

아니, 혼자 살 수 있다. 우선은 지금 내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나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갖추어지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 장애여성의 독립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본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들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장애여성당사자가 직접 출연하여 자신들이 인생의 경험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독립"적인 삶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영란, 순천은 장애여성공감에서 5년 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여성공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입니다. 그녀들의 독립은 가족과 사회, 자신의 장애로 인한 억압을 벗어난 힘있는 외침이었고, 사회와 그녀들을 억압했던 모든 차별에 도전하는 첫발자국이기도 합니다. **She Said**



여성문화 다시보기



여성문화 다시보기

Play Again!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유익살롱

(강연3)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 글로벌 자본주의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강연 속 영화이야기 3)

독일자매

22

수요일

웃는날
여성
흐르고 넘치다



Play Again!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뮤직살롱

언제나 신인가수들은 많이 쏟아져 나왔을 테지만 한해 한해 지날수록 신인가수들을 보거나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누가 누구인지 무엇이 누구의 노래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진다. 그럴 때 지나간 노래들을 들으며 지금 이 가수는 뭘 하고 있을까, 그 때 참 인기 많았는데, 이 노래 여전히 좋다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을 회상하다가 문득 나이를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가끔 노래방에 가서 김완선의 "백에는 우릴 보고 웃지"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거나, 이선희의 "난항상 그대를"을 부르며 열창하는 척 하거나,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밤"을 부르며 마구 분위기를 잡아본다. 마치 스스로가 그 가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다보면 전연 몰랐는데 가사가 너무 주옥같아서 새삼 좋아하게 되는 지나간 노래들도 많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은 멋지다. 그리고 노래를 잘 하는 여자들은 더 멋져 보인다. 이승환, 신승훈부터 신화, 비, 동방신기까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기의 제보만 생각해도 가요계는 남자가수들이 주름잡고 있어서일까, 간혹 이상은이나 김윤아처럼 자신의 음악세계를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음악인이나 보아같은 짱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가수들이 인기와 무대와 자원을 점하는 가요계에서 실력있는 가수로 솔로활동을 하는 여자가수들을 보면 더 멋지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심정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녀들은 멋지다.

어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는 여자가수들이 자신의 실력 그 모습 그대로 음악하면서 살아남기에는 그것을 막는 그물망이 너무나 촘촘하다. 너무나 많은 경우 색스어필하는 존재로서 키워지거나 혹은 그 기준만으로 평가받고,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여성성에 대한 '그들'의 착각 속에서 여성음악인들은 그 진가를 평가받지 못하고 가치절하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마치 구린 노래 가사들에서 여성들이 쉽게 대상화되어 널리널리 불리우듯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위치지으려는 일맥상통함 속에서, 무엇이 비뚤어진 것인지를 꼬집어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진 혹은 숨겨진 여성음악인들을 다시 알고 다



시 듣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울증 후에 자살하였다는 추측으로 인해 나약한 이미지로 더 많이 기억되는 장덕이 사실 최초의 여성 싱어송 라이터이자 프로듀서였다는 사실, 여자 댄스 가수가 거의 전무했던 시대에 섹시하고 화려한 댄싱으로 등장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헐뜯기기 일쑤였던 김완선이 2002년 30대 중반 나이의 컴백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끊임없는 시련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극복해내면서 자신을 만들어 왔다는 점, 장덕이나 김완선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큼 실력을 인정받으며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이자 보컬 트레이너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선주라는 여성음악인의 존재 여성주의 지평 있다(www.ildaro.com)의 문화읽기 중 "한국 여성음악인 제로명" 기획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예술가"를 불러 예술가로 더 많이 알려진 이자람이 현재는 국악을 전공하면서 독특한 음색과 가창력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멋진 음악들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등...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여성음악인들의 음악세계는 알게 될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찾아들지 않으면 쉬이 접할 수 없어 찾아낸 그 음악들은 진한 감동으로 마음을 울린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음악인들에 대한 '진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남성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음악 평론의 세계에서, 자본주의적 상품화가 역시나 뿌리내리고 있어 여자가수라면 성적인 대상으로서 좀 더 쉽게 상품화될 수 있는 음악 시장에서, 그리고 가부장적 시선으로 가득한 인기몰이와 여론 속에서, 여성음악인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실력과 음악적 감수성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음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여성 스스로가 재평가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야기와, 경험, 삶의 다양한 결들은 남성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지워진다. 권력을 지닌 자들의 이야기만이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알기에, 여성의 삶들이 그저 허무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 역사는 여성스스로가 다시 말하고 알고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만의 역사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냄으로써 그 권력에 균열을 가할 수 있고, 동시에 여성의 다양한 삶의 진실과 의미들을 인식함으로써 여성이라는 다양한 존재와 그녀들이 만들어낸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무수한 창조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비로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들어보자. 다시 알고 다시 느껴보자. 박영미, 장필순, 오소영, 한영애, 임현정, 신윤미, 지현, 이주영 그리고... 다 언급하기도 힘든 보석같은 여성음악인들의 음악을.

【Play Again! 뮤직살롱】에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는 여성음악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들어보려 한다. 그녀들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것은 노래를 부르는 자신과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될 이들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목소리, 선율을 아직 충분히 소중하게 듣지 못했다면 아늑한 곳에 모여 함께 듣고 감동하는 경험도 인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언니네(www.unninet.co.kr)에서 주최한 페미니즘 캠프 때 【그녀들이 노래하면 혁명이 다가오지】를 통해 받았던 감동이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린다.

너무나 멋진 여성들의 연주와 노래로 채워진 3시간 가량의 콘서트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청중, 만들고 부르고 연주하고 듣고 열광하고 즐기는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여성들 스스로의 것으로 전유되었던 그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에너지와,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잠재력은 아마 수십 년 뒤까지도 힘과 여유와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한번, 또 한번의 혁명을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여서. **She Said**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강연 #3

: 글로벌 자본주의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어상인연구원 연구교수, 문화평론가)

오늘의 화두:

신체없는 기관과 기관없는 신체 사이에 경합이 붙고 있는, 몸의 경험조차 더 이상 진정성에 대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이 탈근대, 디지털 시대에 여성은 어떻게 생산자/소비자, 소비생산자/생산소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롤로그:

"여성인 나에게 국가란 없다. 여성으로서 나는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인 내게 국가는 세계 전체이다." (1936년 겨울, 베르나르도 로비)

일과 자율적 실존을 위해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이 얼마나 필연적인가를 역설했던 울프의 이 말은 여성이 국가와 맺는 관계를 넘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존 자체를 다양한 맥락과 위치 속에서 탐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작가/문화생산자로서의 여성이 사회제도 및 전통, 규범 등 국가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그 모든 상징적 체계와 맺는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간과 위치, 입장에 대한 근대적 관심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1. lost and found in transition

문화예술의 현장은 '변형 Transition'의 시공간이다.

문화예술은 그 모든 달라진 환경, 달라진 입장들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 중 하나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와의 소통 가능성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윤리적 행위이다. 문화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혁신적인 에너지를 내장하고 있는가의 질문은 그러나 매번, 여전히 열린 과정 중에 있다.

2. 일반론을 경유하기

@ 철학의 세 범주: 정의론과 선험, 그리고 아름다움

철학은 정의론과 선험,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세 원칙을 중심으로 엮여지는 사유의 직조물이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이기도 했으며, 서구 근대의 합리주의적 사유체계에 유대교적 사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다르게 생각하기를 시도했던 벤야민은 철학의 이 세 범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의론과 선험의 인식에 이르는 길은 아름다움에 놓여 있다. 즉 아름다움을 경유해 우리는 정의론과 선험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사회, 바람직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실러나, 그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관심으로서의 미적 판단력이야말로 모든 인식론적, 도덕적 판단의 매개자라고 믿었던 칸트의 미학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존재의 영역이 문화화되어 있는 시대이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머리를 다듬을 때도, 하다 못해 화장실에 갈 때도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를 들먹인다. 문화 인류학의 영향을 받아 확장된 이러한 문화의 개념은 고급 문화와 저급문화, 또는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살의 모든 국면을 문화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만드는 해방적 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예술철학적 질문, 즉 문화 및 예술의 윤리학적 측면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

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권리를 복돋아주는,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의 유토피아적 꿈을 꾸는 것 - 이것이 바로 예술의 핵심이 아닐까.

@ 디지털 탈아우라 시대 : 예술과 아우라, 그리고 예술 체제의 문제

예술은 탈 아우라 시대에도 아우라를 지닌다. 영적 분위기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아우라'라는 개념은 예술이 종교와 맺었던 역사와 전통을 가리키는데, 예술은 이후 종교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영적 분위기를 지녀왔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의미하는 아우라는 일차적으로 예술작품 주위를 감싸고 도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개념을 예술 철학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킨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는 그 예술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의 경탄이 모여서 이루어낸다는 사실이다. 사진이나 영상매체 등의 기술을 통해 예술작품이 무제한으로 복제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실상 관람객들은 예술작품을 얼마든지 자신의 근접거리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탈아우라된 예술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 매 순간 새로 탄생하는 상품이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는 상품들의 사이비 아우라에 도취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도취와 아우라의 경험은 상품물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문화예술작품, 예술하기/문

화하기, 생산과 소비를 통한 문화예술 행위의 아우라에 대해 다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를 위해 도취를 획득하기'라는 초현실주의적 명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여전히 예술작품은, 혹은 예술행위는 어떤 감동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탄과 경탄은 독특한 매혹의 아우라를 이루기 마련이다. 문제는 기술의 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미적 감수성과 미적 판단 능력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가, 그리하여 탈아우라된 시기에 아우라의 그 영적 체험을 모조리 상품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 예술, 다매체의 경계들을 가로지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하나의 고정된 매체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그가 글을 쓰려는 사람이든, 영상제작을 하려는 사람이든, 색채미술을 하려는 사람이든, 아니면 뮤지컬 배우가 되려는 사람이든, 그녀/그는 이제 다시 원시종합예술의 다층적이고 다성적인 예술하기의 현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글쓰기 및 글읽기에 대한 감각과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미적 취향 및 기호학적 판단력, 그리고 신체의 섬세한 움직임들을 통한 자기 표현 능력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능력과 더불어 모든 예술장르가 요구하는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각각의 매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그 역사성을 살피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매체들이 궁극적으로 화합하여 어떠한 의미를 생산해내고,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일 것이다. 이때 생산되는 새로운 의미는 기존의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행복의 기대치를 일인치라도 더 높이는 확장과 내파, 탈주와 해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예술이여: 예술가의 초상

예술하기는 근본적으로 즐거움에 기인한다.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외부세계 및 타자들과의 친밀한 소통을 꾀함으로써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은 여전히 예술행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쾌락에 속한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 자신의 기쁨과 몰두, 즐거움을 통해 즐거움의 바이러스를 전염병처럼 유포시키기야말로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 중의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기쁨이 생산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 지구지역화의 시대, 탈식민의 시대, 혼종성의 시대이다. 21세기를 설명하는 이 모든 명명에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통과하는, 이동하는, 변화하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 즉 trans'일 것이다. 따라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예술가의 초상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을 체현해야 하리라.

이제 문화예술을 하려는 그녀/그는 여러 개의 길들이 열리고 서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행통로(Passage)의 공간에 서 있다. 그리고 그녀/그는 또한 스스로가 여러 개의 길들이 열리고 서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행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 통로' - '문지방'의 시공간에서 즐거운 예술적 상상력, 철학적 상상력을 꿈꾸고 실현하는 사람, 오늘 예술가로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에필로그:

출구→→→↑↓←→일그러진 예술가의 초상 $\infty = \leq \geq \infty$
우 문화예술 생산과 젠더

나의 판 옵티콘, 그 조감도

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가라앉아가고
그 대신 연막선 한 척이 혼자 어디 갔다 오는지
마치 수상 감옥처럼 방마다 불 켜고 흔들흔들 떠올라 오면
나는 필름의 복도를 성공성금 걸어갑니다
스튜디오는 이미 부서졌지만 필름은 남아
여전히 달빛이 복도를 은은히 비춥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은 닫혀 있고 자물쇠가 걸린 방들
방마다 내버려둔 스토리의 필름들이 옷걸이에 걸려있지만 그건
이미 너와 내가 다 봐버린 것들, 이미 다 살아버린 것들 기억에
감힌 죄수들은 모두 이불을 머리끝에 뒤집어쓰고 잠들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과중시계가 땀방울리니 나는 마치 시계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늘들과 톱니바퀴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습
니다 저 복도 끝에는 내 잠 속에서 튀어나온 양이 한 마리 내 애
인과 내 애인의 애인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고 서 있습니다
나는 느닷없이 내 가슴뼈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아파 줄
을 같은 안개를 헤치고 이 복도를 달려가봅니다
방마다 감옥을 열람하는 것

이것이 겨우 내 꿈의 조감도란 말이지요
내 몸속의 복도들이 터지려 하는지 벽이 출렁거립니다
어디에도 무덤 속처럼 비상구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날의 내가 투옥된 복도를 걸어가다가
창문에 어리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마는 얼굴이 곤돌라에 실려 흔들흔들 내려오는 날도 있습
니다 밖에서 조간신문 배달 자동차 멈추는 소리 들리고 큰 연막
선 한 척 한 사람도 내리지 못한 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서 나의 고장난 영사기 나의 몸이 흔들흔들 떠
오를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김혜순, 『한 잔의 붉은 거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 : 마가렛 폰 트로타 (독일 자매), 윤석남
(『내아내』), 키트린느 브레아 (옛 걸), 쓰시마 요코 (나), 크리스
타 불프 (카산드라), 정재은 (고양이를 부탁해) **Seoul**



독일자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 의해 해석되고 보여지는가, 또한 그것을 해석해 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마가렛 폰 트로타 감독의 영화 독일자매는 역사의 질곡에서 욕망하고 저항하는 즉, 살아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두 자매 크리스티아넨과 구드룬

남 여 짝을 맞춰 왈츠를 추는 무대 한가운데에서 언니 크리스티아넨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음악에 도취되어 홀로, 춤이란 누가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이끌림에 움직이는 것임을 이야기라도 하듯, 동생은 그런 언니를 바라본다. 언니의 행동에 동참하지 못한 채 언제나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동생에게 어떤 결핍을 남겼던 것일까? 세월이 흘러 언니와 동생은 그 둘의 어린사절과 서로 맞바꾸기라도 한 듯 다른 삶을 살아간다. 아버지의 법에 끊임없이 저항해왔던 언니는 낙태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여성운동가로서 삶을 살아가는 한편, 동생은 작군파 RAF의 단원으로 국제적 테러리스트로 살아간다.

그러나 영화는 누구의 삶이 맞고, 틀린가로 그들의 삶을 정의내리지 않는다. 테러사건과 연루되어 투옥된 동생과 그녀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언니, 감옥 안에서의 두 자매의 4번에 걸친 면회 장면을 통해, 감독은 그녀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면회가 거듭될수록 길어지는 탁자의 길이처럼 그 둘의 물리적 거리는 늘어나지만, 그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절실함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다. 면회장 밖으로 끌려가는 언니와 동생이 헤어지기 전 서로 옷을 맞바꾸어 입는 모습에서, 물고문당하는 동생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자하는 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끈끈한 자매애를 발견 하고 또 감동한다. 타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위한 몸짓을 보내는 그녀들을 통해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이뤄진다'라는 말은 역사의 권위가 해체되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제대로 들을 수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도 없는 유리벽 사이의 조우 이후, 언니는 동생의 사망소식을 듣게된다. 그녀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타살이 아닌 자살로 호도되며, 혁명가로서의 삶의 맥락은 지워진 채 역사의 범죄자로 얼룩지어진다.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남겨지고 또 지워지는가.

인간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발견되는 것이려면, 폰 트로타 감독이 그렇게 천착하는 자매애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반사적이고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 말이다.



22일 수요일 6시 30분 위당관B09호

언니 크리스티아넨은 동생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던가를, 또한 동생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혼자 거리로 나선다. 언니가 동생 죽음의 왜곡됨을 일리는 노력은 분명,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폭로는 정치적 강자에 대해 약자가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독일 사회의 위선과 구조의 모순에 대한 성찰을 외치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동생이 세상에 남겨놓은 아들 안에 게 보복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의 충격으로 말문을 달은 아이는 어느날 갑자기 크리스티아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자신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세상에 잊혀진지 오래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동생의 삶을 이 작은 아이는 알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영화는 크리스티아넨이 (엄마에 대한 분노로 가득찬 조카를 응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제 그녀 예겐 동생의 삶을 다시 기술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발견되는 것이려면, 폰 트로타 감독이 그렇게 천착하는 자매애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반사적이고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 말이다. 새삼스럽게 자매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것

이 타자성에 대한 자각과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임을 자각하지만, 그 타자성이 타자의 몸과 영혼의 주인됨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 상대와 내가 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묻게된다. 한 사람의 역사와 만나는, 또한 그것을 기술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면하고 있는가?

여성이 역사의 주체로 선다는 것, 문화의 주체로 선다는 것 역시 그러한 타자성을 자각하고 자신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일 게다. 그러한 점에서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폰 트로타 감독의 일련의 작업은 내게 많은 귀감을 준다. 역사적 주체로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역사의 시간에서 제외된 타인, 여성의 삶을 숨쉬게 만드는 것 말이다. 사라진 여성들을 살려내는 작업은 바로 나, 여성의 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She said**

▶ 영화 '독일자매'는 여성제 마지막 날 강연 '여성이 문화 창조자로 선다는 것: 글로벌 자본주의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김영옥 선생님)에 참고자료로써 비디오 클립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by 모란

피곤 게으름, 시간의 부재, 꽃기는 일상, 그리하여 다시 피곤,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게 두렵지만, 언젠가의 도약을 위해 깊이 느끼고, 또 다가갈 수 있기를, 온몸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 페미니즘 캠프!

숨이 턱턱 막히고, 현기증이 나도록 뜨거웠던 여름.
그 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은 100명의 여자들이
산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그녀들은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 산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 산은 아직도 거기에 있고, 그녀들의 마음도 아직 거기에 있다.

여느 때와 같이 언니네(www.unninet.co.kr) 여기저
기를 돌아다니다가 <(2004 언니네 페미니즘 캠프 '여
름엔 역시 수밖에!')>라는 문장이 내 눈에 확 들어
왔다. 페미니즘 캠프라니 이 여름에 '캠프'라는 것이
주는 설렘에 '페미니즘'까지 더해지니 가슴은 두근
두근, 그래도 왠지 바로 신청하기엔 용기가 2% 부족하
여 캠프의 개요부터 일정표, 게시판의 질문까지 읽고
또 읽은 후에야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 있었다.

"몸, 문화,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전용 캠프"가 주재
인 2004 언니네 페미니즘 캠프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주욱 훑어보면 일단 대강의 그림이 그려진다.

여성주의 프로그램

- 내 몸 사랑내 몸과 더불어 지구사랑 '대안생리대 만
들기/ 나염 티셔츠 제작' 내 몸으로 그리는 공동체 그
림 '내가 그린 기린 그림'
- 내 몸 강화 그녀들과 함께 똘구는 특별한 운동회 '그
녀들의 땀냄새' 찰흙두동 온몸을 부드럽게 '스트레
칭 (아침 요가)'
- 내 몸 해방 캠프 때만이라도 브래지어 안하기 거드
랑이 될 안짱고 민소매 입기편한 신발 신고 뒤편
기기
- 캠프파이어 '여성주의 불꽃피지기'



문화 프로그램

- '보다지도되는 극장' 여성감독 단편전 - 탐폰 설명서,
헬멧, 아우회, 짜라파파 정편영화 밤샘 상영 - 급진
적 하모니 외
- 여성주의 뮤지션 총출동 '그녀가 연주하면 혁명이
다오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누군지 궁금하죠?
'이주영', 여성해방문예단 'so what', 섬세한 울림
'신치', 여성주의 편따라 '이다',

프로그램만으로도 이미 이 캠프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주어진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그려내는
것은 모여든 이들의 몫이다. 사교의 여왕 언니 '각자의
별명+언니'로 서로를 불렀다. 말 잘하는 언니, 이야기
잘 들어주는 언니, 춤 좋아하는 언니, 잘 뛰는 언
니, 게임 잘하는 언니, 손재주 좋은 언니... 모인
사람의 수 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2박 3일의
시간을 다양하게 채웠다. 물론, 낯선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한 공간에 놓이게 되자 서로 어색하고
또 어색해 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첫번째 프
로그램이었던 서로에게 인사하는 순서는 정말 특별했
다. 동글게 모여서 사람들과 섞여서 마주치는 언니들마
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다음에는 'OO언니, 안녕
하세요?' 이름 붙여서 인사하기. 그 다음에는 약속하면
서 'OO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그리고 마지막
으로는 께안으며 'OO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모든 단계가 끝나고 다시 동글게 섰을 때는 이미 어
색함은 없고, 화기애애 그 자체였다. 누군가 처음 보
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반갑다고 해주고, 웃
어주고, 손 잡아주고, 등 두드려 주는 것은 새롭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뽕뜨게 해주는 지 다들 감동하
는 눈치였다.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같은 방식으로 인
사했을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 한번 손잡으면
아쉬움에 손을 놓을 줄 모르고, 서로를 안아주면서 이
런저런 이야기들이 어찌나 넘쳐나는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했더라도 이렇게 마음
의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곳이라.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새롭고 즐거웠지만, 여성주의



공동체 그림을 그리는 시간 또한 소중했다. 모든 병원의 예
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내가 있던 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공동체는 '여성주의 예술촌'이라고 정하고 각자
공꾸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어찌나 할 말들이 많은지 사실
그림 그리기보다는 예술촌을 설명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누구든 공연할 수 있는 원형 무대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용까지 점점 더 환상적인 이야기로 변해갔지만, 점점
정말 이런 세상이 올 것만 같고 꼭 와야만 될 것 같은 느낌
이 강해졌다. 여성주의 공동체, 언젠가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성주의자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에서부터 시
작해서,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것으로, 그러다가 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더, 더...

'보다 지도 되는 극장'은 정말 그런 극장이었다. 아불을
물들 말고 영화를 보다가 잠드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발
보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열심히 영화를 보는 사람, 같
은 장면에서 나와 같이 웃고, 화내고, 슬퍼하는 수 십 명의
사람들과, 맑은 공기 마시며 또 별을 보며, 밤늦도록 여성
들이 만든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동이다. 캠프의
취지로 내걸었던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위한 그런 밤이었다.

가장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녀가 연주하면
혁명이 오지'였다. 여성주의 뮤지션들의 공연 여성주
의자들이 만든 노래, 여성주의를 담은 노래, 여성주의자들
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노래, 사람들은 조용히 가사를
음미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뛰기도 했다. 몇
개월째 몸이 아파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던 나도 이 순간
에는 같이 열광했다. 정말, 그녀들이 연주하면 혁명이 올
것만 같았다. 무대 위의 그녀들이나 무대 아래의 그녀들 모
두 이렇게나 뜨거운 열정과 신나는 기운이 가득한데 그 동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서로를 못 알아보고 외로워하여
힘을 주고받지 못했던 것이 한편 안타까웠다. 이제 다들 알
고있겠지.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을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때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에게 향한 끈

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이라
도 기회가 생기면 우르르 다시 뭉쳐서 또 한번 신나게 웃
고 즐기고 '페너지'를 up 시켜야 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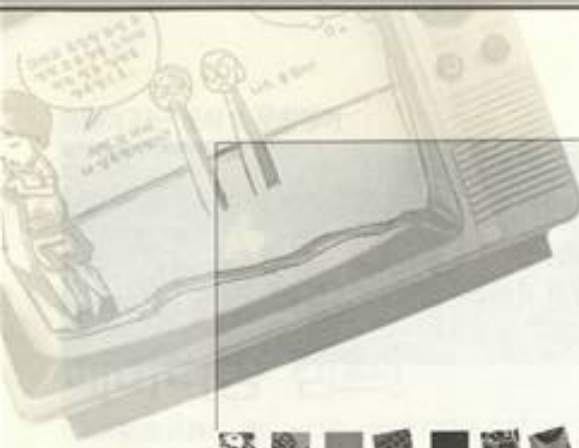
떠나기 전날 밤, 모닥불을 지펴놓고 우리는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물론, 마지막 사람까지 이야기를 마
치고 댄스 파티가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내년을 약속하고, 누군가
는 아직도 여성주의는 모르겠노라고 했다. 사실, 페미니즘
캠프 한번으로 판~ 여성주의가 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은
가. 나는 이번 페미니즘 캠프가 박박한 스케줄과 박박한 규
칙들에 우리 스스로가 파묻혀버리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
이다. 느슨한 듯 하지만 결코 놓여지지 않았던 진행이 좋았
고, 억지로 모든 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
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 조용히 공기 좋은 곳에서 쉬려던 사람, 신나게 놀아
보려던 사람,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던 사
람... '페미니즘'이라는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도 저마다
다른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페미니즘 캠프
의 특별함이 아닌가 싶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오고도 계속해서 이어지던
만남들이 지금쯤은 한물 깎인 더위처럼 시들해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들은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
올 무렵,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여름? = 페미니즘 캠프

프로그램 내용 발췌:
언니네 www.unninet.co.kr/camp2004/camp.asp
사진: 수박캠프 참가자 커뮤니티



by 흐름
여성주의와 문화는 어떤 사이일까,
나는 이 둘을 내 삶에서 어떻게 끌어갈까,
여전히 고민 중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개강입니다. 각렬하는 태양 아래서 건강하를 지내셨습니까, 수강신청은 잘들 하셨습니까, 지야 뭐, 방학 내내 야구만 보면서 빈둥빈둥 지냈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며 여러분과 '달'로 다시 만나니 반갑기 한량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반갑지 않다 하셔도 아무튼 인사는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수강신청을 그러저럭 마치고, 무서운 액수가 찍혀 있는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한 번 쉬어 준 후, 마지막 학기를 맞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말 짜증났던 게 뭐였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우우...참으로 많은 것이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정말 비생산적인 시간이었던 오리엔테이션, 중간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돌아와버릴만큼 지루했던 신입생 수련회, 슬쩍슬쩍 50원씩 100원씩 값 올라가던 학교 식당 메뉴들, 카페테리아 고를생이 없어졌을 때의 슬픔, 교재는 왜이리 비싸고 무거운지 광공, 끝도없네 조모임, 몇몇 교직원(남-_-;)들의 얼굴과 몇몇 학생(남-_-;)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말 킬래야 말릴 수도 없고 말리기도 싫은 여러 가지 행적들...

저 리스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학교 언론'이다. 아,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테니 더 자세히 밝혀야겠군. 여기서의 학교 언론이란 학생들이 편집권을 갖고 만들어내는 매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 등록금에 구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그 매체

연세춘추

THE YONSEI CHUNCHU



오라 연세로

를 접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구독비를 내야하고, 학생 편집국장이 존재하지만 편집인과 주간을 특정 교수가 맡고 있으며, 발행인 란에 정창영 총장의 이름이 찍혀 나오는 매체 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연세의 신문이라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연세의 신문'이라는 말, 상당히 비생산적인 문구라고 생각한다.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신문, 혹은 공식적인 연세의 신문, 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그렇게 돌아박혔을까...;; 어쨌든 <http://www.yonsei.ac.kr/yu/community/media/index.html>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 <연세춘추>이다(이하 <춘추>로 표시한다).

<춘추>는 종종 총여특집 혹은 여성특집이라는 것을 한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아마 그 전 해에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총여특집-정확히 '총여학생회 평가 기사'가 5월 31일날 실렸다. 타이밍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보통 평가라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임기 혹은 임무의 대부분을 수행해낸 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아직도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았는데 뭘 평가를 5월에? 혹시 상반기 평가인가? 그럼 하반기에 평가기사가 한번 더 실리게 되나? 호음...;; 참 외람된 말씀이오나, 쓸만한 특집 거리가 없으셨던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구나. 아휴, 물증도 없으면 서 기자님들의 의도를 왜곡하다니, 죄송해서 어쩌나. 어쨌든, 기사를 보니 학생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던데, 참으로 안타깝다(아! 솔직히 학생들이 뭐 춘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관심도 많고 생각도 많나? 싶기도 하지만, 으하하).

하지만 춘추에서 그 특집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객관식 문항을 만들 때, 문항들 간에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안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러나 춘추의 설문 조사 문항들은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본없음을 통해 춘추가 총여학생회 혹은 여성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은근슬쩍 드러난다. 뭐, 이런 식이다.

현재 총여가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여성운동 참여 및 유도 (문화제 세미나 등)
2. 학내 여성들의 복지신장 (여학생 휴게실 등)
3. 성폭력 근절 및 여성 보호 (반성폭력 운동 등)
4. 여성만의 소통의 장 마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
5. 학내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개선 (여성주의 매체발간)

정말로 저 다섯 가지가 서로 다른 범주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문화제를 통해 학내의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는 명제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분명 참이지만 그 문화제라는 판 자체가 여성들의



도대체 그 기사에서 피해자는 어디로 갔는가? 기사 제목에서 한 말마따나,

정말 성폭력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를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명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 높다', '명예 훼손감이다', '반대하는 학생들 의견이

줄을 잇는다', '조치가 지나치다',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위의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며, 그 문화제를 통해 (하내)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틀렸나? 그리고 도대체 춘추에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인가? 사건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 이라고 하더라.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학내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반성폭력 운동과 복지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아닌가? 그렇다면 여성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을 보호(라는 단어는 꽤 든금없다고 생각하지만)하는 것이 복지신장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이제까지 춘추가 총여학생회와 관련된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할 때마다 '복지'와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운동'의 명쾌한 삼분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하다. 도대체 그 셋은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_+

그 특집 기사만 가지고도 할말이 많은데, 7월 26일에는 더더욱 든금없는 기사가 또 하나 실렸다. 제목은 <성폭력 해결방안, 올바른 방향은?>. '현재의 방향은 올바르지 않아!'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이라는 느낌이 들건만, 알라리알라, 6월 14일 중도 게시판에 가해자 실명공개 대자보가 공개된 후의 논란(?)에 대해 쓴 그 기사에는 가해자 실명 공개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론은 당연히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 아이고, 말은 좋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데? 누가 모색할 건데? 누구한테 요구하는데? 공감하고 인정하는 '대다수의 학생'은 누구데? 대다수의 남학생들? 재수없게 걸려서 가해자가 된다고 해도 그냥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라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도대체 그 기사에서 **피해자**는 어디로 갔는가? 기사 제목에서 한 말마따나, 정말 성폭력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기자분이라고 생각한다!!)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를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명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 높다', '명예 훼손감이다', '반대하는 학생들 의견이 줄을 잇는다', '조치가 지나치다',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위의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당

사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고, 높은 반대 여론을 형성한 이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남학생들인 것이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명예라는 의미로 읽게 되는 것은 나만의 오독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기사와 함께 실린 그림이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고 은밀한 눈빛 등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일체를 성폭행으로..."라고 끝이 없도록 긴 종이에 쓰인 듯한 글을 읽고 있는 뒤에서 웬 사람들이 '저런것까지 다 성폭행이었어?' 라고 당황하고 있는 그림. 아아, '성폭행'과 '성폭력'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사용하는 '섬세한 언어사용능력'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간에 세 가지만 얘기한다.

1. 성폭력 상황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구성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될 것은 '그 상황에 성별권력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가'의 여부이다.
2. 어떤 맥락 하에서 일어난 일인지 전후 상황을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
3. 따라서 모든 상황에 100% 들어맞는 기준같은 것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것이다.
4. 그러므로 '무조건 기분 나쁘면 성폭행?!'이야? 기준이 도대체 뭐야? 같은 소리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보태기. 총여학생회에 가서 여휴 관리 얘기 좀 하지 마시라. 각 단대 여휴는 그 단대에서, 중도 여휴는 중도에서, 학관 여휴는 여학생처에서 관리한다. 총여학생회가 관리하는 여휴 없다. 매년 하는 얘기 다음해 되면 하고 또 하게 만들지 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 변하지 않는 내용들은 담당 기자들간에 이월 좀 제대로 하시라.

하나 더. '페미니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 좀 제발 하지 마시라. 한 개인 여성주의자에게 페미니즘이란 평생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자기 삶의 원리이지 쉽게 'A안 B가 C해서 D한 것이야'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을만큼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말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공부하시고 부딪치시고 고민하시기를.

마지막(정말 끝이 없구나). 제발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자들)을 동격으로 놓고 '와, 재네는 다 저런가봐, 저 판은 저런가봐~'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 좀 그만하시라. 총여학생회는 이 세상(혹은 학내)의 모든 여성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이 결코!! 절대!! 아니다!! 여성주의자개개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은 모두 다른 색깔과 결을 가진다. 당연한 것 아닌가? 아이고, 이런 편한 소리를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앉아 있는 내가 불쌍하네ㅠ_ㅠ **See Said**

by_늘 결국은 이번달도 친소리 투덜대기 뒷담화
아아 나도 좋은 얘기 좀 하고 싶다고요:P



친구

나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두세 주 만에 후딱 책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려면 편집자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8월 초에 내가 그랬다. 올림픽과 관련된 원고를 올림픽 개막일부터 일주일 안에 출간하라는 특명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잠옷 바람으로 원고를 보기 시작해서 회사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원고를 보고 회사에서도 다른 원고와 잡일은 모두 제쳐둔 채 그 원고에만 매달렸다. 집에는 저녁 11시에 들어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갔다. 그리고 나서도 계획했던 날짜보다 이틀이나 늦게 인쇄소에 원고를 넘기고 말았다. 결국 팀장님으로부터 "이제 신입사원도 아님데 일을 이렇게 하면……."으로 시작하는 질책을 들었다.

그래도 일단 원고가 내 손을 떠나 인쇄소로 가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급하게 진행한 책이라 분명히 어떤가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 같았다. 인쇄소에서 책이 찍혀지는 동안 온갖 나쁜 상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었다. 결국 닷새 만에 책을 받은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은이의 말에 놓였던 작은 그림 하나가 빠진 채 인쇄가 된 것이었다. "이제 신입사원도 아님데 일을 이렇게 하면……."으로 시작하는 질책을 또 한 번 들었다.

졸업한 여성주의 자 세 상 살 기
편하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우울함 같은 것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면 친구는 다 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기분이 좋았다. 자,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줘야지.

아이를 낳고서 산후우울증을 앓듯 책이 나온 후 '출간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점심도 거르고 회사 옥상에 올라가 혼자 담배를 피우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친구는 뜻밖의 말을 했다.

"나 남자 친구랑 헤어졌어." 앗, 이럴 수가!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 태어난 운명인가 봐!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점심 때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상심해 있을 친구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광화문에는 어떤 맛집들이 있을까? 친구에게 무엇을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니 고단백 음식이면 된다는 애매한 답이 돌아온다. 가정, 가사 과목은 영 썸병이었던 내가 어떤 음식이 고단백인지 어떻게 알아? 결국 이런저런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뒤져 이름이 제법 알려졌다는 맛집들의 목록을 뽑았다. 혹시나 헤맬까 봐 지도까지 그려 놓았다.

그리고 토요일, 휴일인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을 땀었다. 손톱 발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몇 년 만에 린스로 머리를 감고 안 하던 코팩까지 했다. 얼마 전에 새로 산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옷 색깔에 맞추어 귀고리를 했다. 광화문까지 가는 동안 일으려고 가방 안에 책을 챙겨 넣었지만 정작 버스 안에서 나는 책을 꺼내지도 않았다. 무척이나 설레서 아무 글자도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드디어 친구를 만났다. 정말 오랜만이다. 한 달 만이지. 그 정도면 별로 오랜만인 것도 아니라고? 대학교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던 친구다.

"너는 더 예뻐졌구나."

"원래 예뻐서."

"거기서 더 예뻐졌다니깐."

편하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우울함 같은 것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면 친구는 다 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기분이 좋았다. 자,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줘야지. 친구는 내가 뽑은 맛집 목록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골랐다. 우리는 몸에 좋은 쌀국수를 먹으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내게 가장 힘이 되어 주는 친구들은 대학교 때 여성주의 활동을 하며 만난 여자 아이들이다. 여성주의는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다. 나의 힘든 기억을 치유해 주고 달혀 있던 나의 말문을 띄워 주고 내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준 친구들.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시겠지. 남동생은 따로 가족을 만들게 될 거야. 내게 남편과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주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줄 거지? **See Said**



성폭력에 대한 담론은 언제나 가볍기 그지없고, 또 그만큼 무거워 숨쉬기가 어렵다.

'별거 아닌' '그저 장난에 불과한' 나쁜 의도는 없었던 '친밀함의 표시일 뿐'인 성폭력이 한 쪽에 딱하니 존재하면서 '인생 망친' 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평생 가져가야 하는 트라우마'인 성폭력이 함께 존재한다.

이 속에서 과연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의 생존자는 어디 즈음에 위치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성폭력에 대한 그 가벼운 담론들은, 성폭력을 사소한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 버리고 마는 오랜 가부장적인 문화와 그렇게 주변화시키는 것이 남성들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약속에서 기인한다.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특별하고, 한정적이며, 일반적이지 않고, 사소하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 기준이고 일반이고 평균이고 보편이라고 이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남성의 몇 퍼센트가 겪고 있는 문제인지 따져지지 않고 그저 모두가 해결하고자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보편과 특수성의 관계에서 언제나 구조적으로 보편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성폭력을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매우 많다. 이는 성폭력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과 거의 동의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난이나 일종의 성적인 행동 정도로 생각한다. 혹은 (좀 이상한) 여성이 과도하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해자 실명공개 사과와 같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인지에 따라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해자의 인권문제라는 이름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은 별거 아닌 문제, 너무 모호한 문제, 여성의 거짓말로 인하여 남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른 어떤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동정론'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동정이 매우 쉽게 일어나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끝없이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단지 피해자와 자신이 친한 사이라는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것이 성폭력이 아닌 것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연쇄 살해범의 이야기는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제나 성폭력은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의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사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국가와 정치, 경제, 민족이라는 '중요한' 거대 담론 속에서

성폭력의 이슈는 담배 값 인상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속에서 끝없이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사람들, 여성들은 별 거 아닌 문제에 '목숨 건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예민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예민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상대적이다. 자신이 성폭력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고민한 바 없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 안에서 아무런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굳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하루종일 눈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성폭력은 언제나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폭력은 축소되어 은폐되는 만큼 과장되어 인식된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행위 자신이 강간 피해를 입게 된다면 차라리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어린소녀들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게 들린다.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피해 역시 모두 다르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말에 고정된 이미지는 '함부로 입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 혹은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 별 거 아니니, 금방 떨쳐내야지'라고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을 주지 않는 반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거 보니, 성폭력이 아니었거나 별로 피해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라고 쉽게 이야기 되는 것이다.

처벌이 논의되는 지점은 '가해'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가해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학교를 그만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하지만 그것이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성폭력에 대한 이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시선은, 성폭력에 대한 극단적인 타자화의 결과로 여겨진다. 성폭력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 매우 사소한일로 취급하거나 매우 엄청난 일로 여겨지는 것. 이 양가적인 모습이 모두 성폭력을 '말하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명명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 어떠한 사건이 '성폭력'임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부르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뒤따라 발생하는 것들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이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시선은, 성폭력에 대한 극단적인 타자화의 결과로 여겨진다. 성폭력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 매우 사소한일로 취급하거나 매우 엄청난 일로 여겨지는 것. 이 양가적인 모습이 모두 성폭력을 '말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이 겪은 성폭력의 다양한 내용과 피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다양한 전략들과 의미 짓는 방식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아주 사소한 가벼운 일이거나 아주 무거운 일, 둘 중 하나로 어느새 포섭해버리고 정리해버리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의 문제이며, 대문자 여성의 삶과 일상을 통제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성폭력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다양하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은 매우 가벼운 일일 수도 있으며, 또 매우 무거운 일일 수 있다. 또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성폭력에 덧붙여진 단일한 의미들을 벗겨내기 시작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서 더욱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See Said**

by 여랑 (yoling@hanmail.net), 명량한 페미니스트,
학교는 떠나도, 액티비스트의 삶은 이제/ 또/ 시작

참을 수 없는
성폭력의 가벼움
그리고 무거움

단단의 여성주의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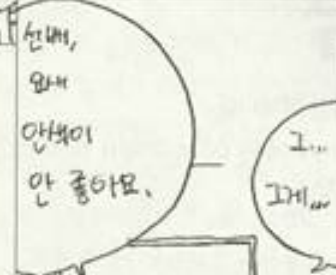
by 단단

98학년도로 사회적,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티에서 활동한 김다영입니다.
은 죽게 여성주의를 만나 오랜 꿈이었던 만화가가 된 후의 목표와 즐거움을 찾아드립니다. 반가워요



4개월 뒤.

선배, 역시 안되겠더라고요. 더 이쁜 애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단단의 여성주의 만화

대안적 삶과 세계를 만드는 원천이 되는 페미니즘

벨 훅스(Bell Hooks), 『행복한 페미니즘』
(원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박정애 옮김, 백년글사랑, 2002년

장입수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석사과정 3학기

벨 훅스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지배를 종식시킴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행복한 페미니즘』을 끝맺으며 적고 있다.

그가 페미니즘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페미니즘이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싸웠던 페미니스트들의 역사를 섬세하게 평가하면서, 페미니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힘과,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페미니즘이 '왜 좋은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서 적으로 만든다는 인식, 비판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인식, 무능하고 세상에 불만만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인식, 이 모든 신화들이 이 책을 통해 완벽히 깨지는 것을 독자들은 느낄 것이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을 명확하게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 따라서 성차별주의적인 행동과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 정의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페미니즘이 가지는 대안적인 가치를 설명한다.

성차별주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억압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와 언제나 함께 작동한다. 벨 훅스는 이 모든 지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인종주의, 미국 내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질서, 식민주의적 세계관, 이성애 중심주의, 모든 종류의 폭력의 정당화, 가부장제와 같은 지배를 위한 기제들이 모두 성차별주의를 강화하고, 성차별주의도 이들 권력 관계 속에서 발휘되고 있음을 그가 직접 발견하였고 이 지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벨 훅스의 이 책이 가지는 강점이 드러난다. 벨 훅스는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스스로 겪었던 미국 사회의 변화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역사로 위치시킨다.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지배적 권력에도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가 이 책을 쓴 2000년이 어떤 시기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미 오랜 시간 성차별주의와 싸워 온 페미니즘이, 이루어낸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수사(修辭)로 이용당하기도하고 매스미디어에서는 다

시금 성차별주의적이고 페미니즘을 왜곡시키는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벨 훅스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세상의 여성과 남성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이루

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페미니즘에 기반한 많은 운동들이 어떨 때 한계를 가져서 다른 억압과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페미니즘이 일궈내고 있는 역사를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위치 짓는다. 페미니즘이 이루어 놓은 성과물들이 퇴보로 인해 다시금 위협받을 때, 페미니즘 운동을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낸 역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은 성차별주의적인 담론이 페미니즘의 정치적 주장들을 왜곡하여 페미니즘의 이상(理想)을 평가절하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운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미래의 삶을 설계할 때 페미니즘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다시금 성차별주의의 시각에 빠지도록 만든다.

페미니즘을 역사 속에 위치 짓는 것은 페미니즘이 가지는 대안적 삶과 세계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해 준다. 벨 훅스는 이 책을 통해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주었던 대안적 가치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적극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그는 인종 차별과 식민주의가 사라지고, 폭력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통제하는 권력이 사라지는 미래이다. 교육, 매스 미디어, 직장, 남성성, 외모, 결혼 및 파트너십, 섹슈얼리티, 종교, 사랑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맺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측면들 모두에서 성차별이 사라지고,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개개인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전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페미니즘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벨 훅스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와 자기 자신이 변화한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벨 후스도 주장하고 있듯이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상황과 연관시키며 급진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여성 학자들과 여성들의 문학에 대해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것,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게 된 것, 모든 사람이 계급이나 성의 차이와 관계 없이 충분히 개인적 성장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다른 인종의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게 된 것,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짐으로써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된 것,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성적 지향성에 따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여성들이 종교에서 자신을 긍정하면서 영적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등이 모두 페미니즘에 의해 일어난 변화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단히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벨 후스는 성차별주의에 반대하고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벨 후스는 인종주의나 계급적 위치에 안주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페미니즘이 사용되거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입장을 쉬운 언어와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벨 후스가 다루는 많은 주제들 중 어떤 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쉽게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들은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

기 힘들기도 하다. 논쟁이 되었던 주제들에 대해 벨 후스는 그 복잡한 논쟁에 대한 긴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어떠한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쉬운 표현으로 나타낸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책을 통해서 더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책은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흥미를 끌어주면서,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책이 번역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책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번역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벨 후스도 주장하고 있듯이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상황과 연관시키며 급진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페미니즘이 갖가지 오명을 쓰고,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비난받기 쉬운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가지는 에너지와 전망을 긍정하도록 도와준다.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희망과 힘을 더해줄 수 있고,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페미니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See Sud**

한국 남성들의 이기주의

수많은 성폭력들은 그 자체로 '성'이라는 것을 남성이 요구하고 여성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강화한다. 다른 남성들에 의한 폭력에 대해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말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의식적 외면이자 무의식적 확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 이야기를 하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몇몇 미친놈들이 그러는 걸 가지고 왜 나에게 그러냐', '그것 가지고 모든 남성들을 적대시한다. 그것은 성 급한 일반화가 아니냐'와 같은, 자신은 성폭력과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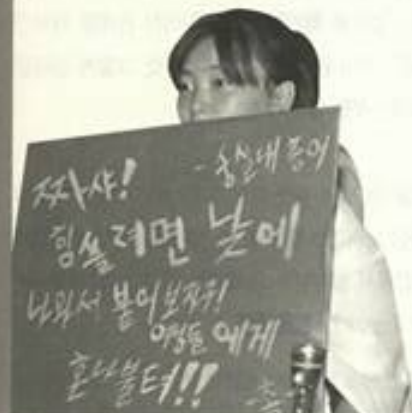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40명 중 한 명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보자.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따올려면 남성들에게 이것은 남종의 한 번에 불명확성이 한 명씩은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 즉 별 것 아닌 문제이다. 그것은 굉장히 작은 비율이며,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이 통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나가는 40명 중 한 명 같은 과반 40명 중 한 명이 자신 혹은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것 더군다나 '한 명이 한 번'만 저지르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는 작은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없다. 이는 주한미군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주한미군의 범죄는 미군철수를 주장할 때마다 거론된다. 즉,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는 여성이지만, 주한미군 문제에서 피해는 남성에게도 있으며, 더 크게는 민족이 피해를 받는다. 즉,故 윤금이 씨 역시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일 때는 민족의 문제로 치환됨으로써 남성들이 자신에게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故 윤금이 씨 살해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언론에서는 유영철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불우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남성들은 그를 동정한다. 이 사건을 단지 '사회로부터 무시 받은 불쌍한 사람'의 목주 정도로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몸 함부로 굴리는 여성'들을 단죄 했으면서 영웅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누구의 시각인가. 두 사건의 차이는 단지 가해자/범인의 국적뿐인데,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유영철 사건을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사회로부터의 무시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증오로 변모했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왜 불우한 삶에서 '여성'으로부터 받은 무시가 그렇게 유별나 보였는지 그것은 사실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들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아내에게 이혼당했으니까가 아니라, 왜 다른 일들은 참으면서 그것만 기억해서 고집내고, 그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분노를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어떤 남성들이



법원, 유영철 판결 전 조사 실시

2014. 12.29 - 12.3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유영철 교수는 법원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법원 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철 교수는 "유영철의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의무화할 경우, 법원을 이해하고 이를 정당한 판결로 받아들이기 위해 법원 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전 조사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모든 판결을 검토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주로 소년법이나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유영철을 동경하기까지 하는지 그것은 불난 집 구경 가듯, 피해 집단이 자신이 속하지 않아서가 아닌지 더군다나 그 불난 집이라는 것이 자신이 평소 에 불을 지르고 심어 했던 집이라면 더더욱, 이 사건에서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러한 논의를 무시한 채 단지 '사람을 죽였으니' 잘못 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역시 물상적이다. 그 이전에는 구 52번 노선을 따 른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전에도 여성 형으로 인한 살해는 계속해 서 있었으나, 남성들에게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범인을 잡는 것 외에 딱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뿐더러,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들에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 가해자는 한 명의 미친 사람(가해자는 남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자 자격도 없다' 등등의 비난을 통해 남성 집단에서 제외하려고 하기도 한다)으로 이해된다. 즉 자신은 가해자 도, 피해자도 아닌 객관적인 제 3자가 되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는 여성들에게는 '조심' 할 것을 당부하고, 집에 일찍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 이다. 조심하라니, 누가?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격리' 시키는 것인가?

일단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한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범인이 어떤 집단에 속할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최근 주한미군의 범죄가 자주 뉴스 에 오르내릴 때, 아무도 한국인들은 미군 앞에서 조심하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 전자와 같은 논리라면, 미군 범죄가 그렇 게 문제라면 한국인들이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나가는 미군을 공 격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성을 공격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가해 집단이 문제이고 어떤 경우에는 는 피해 집단이 문제인가. 그것은 결국 자신이 속하지 않은, 한국 남성들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요구 하려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성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며, 따 라서 이로부터 자유로운 남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52번 살인사건들은 여성들에게 집에 일찍 들어갈 것을 요 구하고, 남성들은 주위의 여성들을 '데려다줌'으로써 성향의 권력관계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한다. 수많은 성폭력들은 그 자체로 '성'이라는 것을 남성이 요구하고 여성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강화한 다. 다른 남성들에 의한 폭력에 대해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의식적/외면이자 무의식적 확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여러 단체의 여성들이 모여 밤길을 되찾기 위한 달빛시위를 했을 때 봤던 피켓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다. '남 자는 집에 일찍 들어가' 라는 홍대 클럽에서는 정부의 폐쇄 방침에 맞선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미군출입을 금지했다고 한 다. 그렇다면 그들은 남성들의 밤길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클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비 율보다는 밤길에 발생하는 문제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배는 클텐데 말이다. **She said**

by 이스트 어퍼다 이만으로 글러 들어와서 뭐할까 고민하다가 사고 장치된 소심하고 편협하고 게으른 남자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자보 불이와 편집 독감이 따라하기 이간질